

西洋百科事典의 歷史的考察

姜 惠 英*

目	次
I. 緒 論	2, 2단계
II. 百科事典의 意義	3, 3단계
III. 發展過程	IV. 結 論
1, 1단계	

I. 緒 論

도서관의 참고자료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百科事典이다.

인간의 知識 全分野를 하나의 著作속에 收錄하려던 試圖에서 출발된 백과사전은 근본적으로 學問發達史의 안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古來로 부더 있어 왔으며, 시대의 변천과 아울러 학문이 진전되고 細分化됨에 따라 백과사전의 성격에도 계속적인 변화가 병행되어 왔다.

또한 제작, 편성의 면에서도 점차 수록범위가 방대해져 東西古今의 諸分野의 지식을 체계있게 편성해 둔 多卷의 형태로 발전되었으며 近世에는 학문의 專門化현상에 따라 한 사실에 대해 보다 더 심층적인 정보를 수록하는 주제전문 사전으로 까지 발전되었다.

二千年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을 根幹으로 하여 그 時代 혹은 後代에 다른 유형의 참고자료가 생성되고 또 발전을 계속하였다. 이런 점에서 불

2 도서관학논집

때 백과사전의 발달, 특히 성격 및 편성체제에 대한 이해는 참고자료의 機能 이해에 先行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도서관자료 편성정책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백과사전 하나하나에 대한 소개는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稿에서는 이점에 관련하여 20세기 초까지의 서양백과사전을 그 발달사적 면에서 분석, 연구하여 그 의의 및 편성체제상의 특징을 考究하고자 한다. 또 이 연구는 더 나아가 동양의 類書 연구에 까지 連繫시켜 동서양의 백과사전이 참고자료로서 갖는 편성상의 특징을 究明하여 典籍發達史에 一隔을 만들코자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紙面과 시간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다음을 약속하는 바이다.

II. 百科事典의 意義

백과사전 (encyclopedia)이란 말은 그리스語의 <enkliōi (circle)>과 <paideia(of learning)>에서 유래된¹⁾ 것으로 초기에는 學習의 순환을 의미했던 것으로 그리스인들이 고등교양교육의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藝術과 科學의 全分野에 걸친 가르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²⁾ 그들의 교육이념은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상생활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함이 좋다는 로마인의 태도³⁾와 함께 백과사전적 著述의 始源을 이루었다.

1)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Y., Dekker, 1972. Vol. 8. p. 48.

2) Gales, Jean Key, Guide to the Use of Books and Libraries, 4th ed. New York, McGraw-Hill, C 1979. p. 81.

3) Collison, Robert C. and Warren E. Preece. "Encyclopaedias and Dictionaries," In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79. Vol. 18. p. 366.

그후 Rabelais가 < Pantagruel >에서 佛語로 그 단어를 사용했을때도 그것은 教育을 의미하고 있었다.

1559年 독일인 Paul Scalich가 이 단어를 개척적으로 사용했을때 비로소 인간이 古來로 지녀온 知識의 總體를 要約하고 있는 하나의 著作을 指稱하게 되었으나 Denis Diderot가 < Encyclopédie >에서 그 용어를 유행시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수용을 받지 못했다.⁴⁾

知識의 총체를 요약해 둔 著作으로서 이해되자 初期 事典編纂者들은 백과사전의 역할을 그 시대의 文化的, 學問的 성격울 분명하게 반영하는 거울로 보았다. 도미니카교단의 수도승 Vincent of Beauvais가 1244年 편찬한 그의 著作을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것⁵⁾으로 보아 <큰 거울(Speculum Majus)>이라고 命名한 것과 같이 그들의 著作名에 <Speculum (Mirror)>, <Imago(image)>와 같은 단어를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지식을 반영할뿐 아니라 Beauvais가 ‘世界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암시한⁶⁾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가 指向해야 할 바를 지시해 주는 것으로 教育적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목표는 백과사전의 긴 역사를 통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14세기까지도 백과사전을 진리추구의 道具로 간주하는 성향이 지배적이었으나 15세기초 Domenico Bandini가 教育적 기반이 있는 사람에게 특정 주제의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을 편찬하여⁷⁾ 역할의 시각을 달리 하게 하였다.

근세백과사전의 기반을 확립한 Diderot는 그의 < Encyclopédie >를 ‘人間的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 배열한 거대한 寶庫’라고 생각했으며 Guizot(1828)는 백과사전을 ‘인간의 정신에 관한 모든 著作의 결과가 누구나 그의 호기심을

4) loc. cit.

5) 朴後植, 參考調查論.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1983. p.228.

6) Collison, op.cit. p.366.

7) loc. cit.

4 도서관학논집

만족시키기 위해 던지는 사람에게 제시되는 巨大한 知識市場'이라고 보았다.⁸⁾

방대한 지식의 계층적 편성에 중점을 둔 Coleridge는 백과사전의 역할을 인간을 조직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매개'물로 간주하여 그의 철학적 배열이 조화되어 지식의 순환을 나타내고 설계와 설명에 통일성을 줄 것⁹⁾이라고 느꼈다. 또한 영국작가 H.G. Wells는 백과사전은 잡다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이고 명료하고 통합적인 것이어야 한다.¹⁰⁾라고 밝혔다.

이상의 언급에서 볼 때 백과사전은 始源에서 부터 내포되었던 것처럼 모든 지식분야에 관한 정보의 총합체로서 일반학문의 기본원리와 가장 상세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대한 개념은 ALA Glossary of Library Terms의 "백과사전은 지식의 전분야에 걸쳐 각 주제에 대한 상세한 論文(情報)를 수록하고 있으며 보통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때로는 특정주제 全分野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설명에서 집약되고 있다.

또한 이런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통 多卷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定義와 敘述, 解說, 歷史, 현행상황, 통계 및 書誌, 索引, 선명한 삽도와 지도, 상호참조표시 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체 완비된 참고자료로써 지식여행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서나 혹은 항상 의지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

Ⅲ. 발 전 과 정

1. 1 단계 : 古代부터 1600年

서양에서의 백과사전역사는 매우 오랜 것이나 그 始祖가 누구인지에 대한 定論은 아직 없다.

그러나 B.C. 3~400年경 플라톤이 그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을 제출한 바 있으며 그의 조카 Speusippos가 教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플라톤의 言論

8) 鄭駟謨 譯, 圖書館 및 文獻 利用法, 서울, KLA, 1971. p.83.

9) Collison, op.cit., p.367.

10) loc.cit.

彙集을 편집하였다.¹¹⁾ 이는 플라톤 그 자신이 백과사전적 著作을 갖지는 않았으나 당시 존재한 지식의 全分野를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百科事典의 論文이라할 수 있다.

또 어떤이는 Aristotle을 “백과사전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한다.¹²⁾ 그도 역시 자신의 백과사전적 논문은 없지만 아테네의 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철학, 과학, 美學, 詩學, 修辭學 등의 著作을 편집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수학, 천문학, 의학, 과학사 방면의 論文을 편집하게 했다. 이런 다양한 論文들은 취급범위에 있어서도 현대의 백과사전에 상응되는 것이다. Aristotle이 이러한 지식의 체계적 요약에 근거하여 그의 著作을 백과사전의 始源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이전의 Demokritos를 꼽기도 한다.¹³⁾

그리스인들이 학교교육의 영향하에 올바른 思惟를 위해 출발된 것과 달리 로마인들은 전분야의 인류지식을 발취, 총집시켜 實生活의 성공적인 과업수행과 청년들의 행동준칙으로 삼기 위해 편지 혹은 冊의 형식으로 출현시켰다. B.C. 183年 로마의 집정관 Cato가 그의 아들 Napraepta Ad Filium에게 보내는 일련의 편지 < Praecepta Ad Filium (Advice to his son) >가 최초의 것이다. 이 편지는 現存되지 않으나 그 내용은 農業, 醫學, 修辭學으로 추측될 수 있으며 法律과 戰爭 등에 까지 미칠수 있는 것 같다.¹⁴⁾

그러나 백과사전의 組織에 科學的인 方法을 도입한 사람은 로마 최고의 知性人으로 비유되는 Marcus Terentius Varro이다. 그는 多作家로서 文法, 選輯, 修辭, 기하, 수학, 천문, 음악, 의학, 건축을 내용으로 한 일종의 백과사전적 論文인 < Disciplinarum libri IX (Nine Books of Disciplines) >와 中世教育의 내용이 되는 三學四藝¹⁵⁾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백과사전적 논문인 < Rerum divinarum et humanarum antiquitates >을 저술하였다. < Rerum divin-

11) 黃鴻珠, “中西百科全書의 比較研究,” 教育資料集月刊 6卷 4號, 民62, 10, p.16.

12) World Book, Chicago, Field Enterprise Educational Cooperation, 1969, V.6, p.221.

13) 朴俊植, *op.cit.*, p.227.

14) Collison, p.379.

15) 三學은 中世大學의 7教養중 文法, 論理, 修辭이고, 四學은 幾何, 代數, 天文, 音樂이다.

arum et humanarum antiquitates〉는 全 41卷으로 卷 1~卷 25는 人間에 관한 사항이고, 卷 26~41은 神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Varro는 人間을 더 먼저 배열하여 이후 중세의 절대다수 백과사전들이 神을 중시한 것과는 반대로 編成하였다. Varro의 백과사전은 이후 600年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散失되고 말았다.

A.D. 77年 이태리의 Gaius Plinius Secundus¹⁶⁾ (A.D. 23~79)가 그 편집방법으로 인해 최초의 백과사전이라 불리우는 〈Historia Naturalis〉를 발간했다. 그가 비록 博物學者는 아니었으나 선천적으로 事物의 조직에 뛰어나 464名の 著者들이 쓴 2천여권의 古代圖書를 상세히 분석하여 2493章으로된 37卷의 分科式 百科事典을 만들었다.¹⁷⁾ 그 內容은 第1卷이 지식의 조직에 대한 概述, 第2卷이 우주학, 第3~6卷은 지리학, 第7卷은 인류학 및 생리학, 第8~11卷은 동물학, 第12~19卷은 植物學, 第20~32卷은 動·植物 및 醫學, 第33~37卷은 금속, 광물, 암석, 보석학 등으로 당시 科學方面에 대한 概述을 상세히 하였다.¹⁸⁾ 각 항목은 事實과 함께 傳奇도 함께 수록하여 사실과 공상의 구별이 없는 결점이 있었으나, 1500년동안 다른 백과사전의 주요 자료원의 역할을 했다.¹⁹⁾ 후에 皇帝 Titus에게 헌정된 이 책은 현존하는 最古의 것으로 中世도서관에서는 이 책이 없으면 그 도서관의 자존심이 훼손될 만큼 유명하였으며²⁰⁾ 그 환영은 16세기에 이룰때 까지 계속되어 43卷本이 1536年 이전에 出版되었으며²¹⁾ 오늘날에도 對譯版이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Heineman社)로 10卷으로 발행되고 있다.²²⁾

3세기에 라틴문법학자인 Gaius Julius Solinus가 〈Collectanea Rerum-Memorabilium〉을 편찬했다. 이 책은 〈Historia Naturalis〉에서 약 90%정 정도를 끌어낸 것으로²³⁾ 地理的인 사항이 중시된 것으로 雜史의 參考나 기타

16) 일명 Pliny the Elder라 불리기로 한다.

17) 朴俊植, op.cit., p.236.

18) 黃鴻珠, op.cit., p.16.

19) Collison, p.379.

20) Collison, Robert C. Encyclopedias; their history throughout the ages, New York, London Hafner, 1964, p.26. (朴俊植, p.236 재인용)

21) 鄭 謨, op.cit., p.81.

22) 朴俊植, op.cit., p.236.

23) Collison, op.cit., p.379.

사무적인 것을 참고할 수 있는 백과사전이며 Seville의 主教 Isidore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²⁴⁾

410 ~ 489年間 환상적인 카르타고人 Martianus Capella가 全9卷으로 된 < Liber De Nuptiis Merourii et Philolciae >를 詩的이고 教育的인 方法으로 서술했고 551년에는 Cassiodorus가 政界를 은퇴한 후 教育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2卷으로 된 < Institutiones Divinarum et Saecularium litterarum >을 刊行했다. 제 1권은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기독교에 관한 것을 수록하고 제 2권은 일반인들이 3學4藝에 응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며 각 항목옆에 書目式的 註解를 덧붙여 독자들이 더 많은 자료로 독자적인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²⁵⁾ 이책은 기독교와 세속에 명확한 구분하여 당대의 名著로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을뿐 아니라 중세에서도 백과사전편찬의 기초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西洋學術의 發展에 宗教와 非宗教의 分野가 두드러져 階級제도 대개 한·두分野에 치우침이 특징이었는데 스페인 Seville의 主教 Isidore는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A.D. 7세기에 그는 약 20년에 걸쳐 全20卷의 < Originum seu Etymologiarum Libri XX >를 만들었다. 教養, 醫學, 法律, 聖書, 神, 教會, 言語, 社會, 語源學, 人類, 動物, 宇宙, 大地, 海洋, 地理, 도시계획, 건축, 농업, 원예, 전쟁, 선략, 주택, 풍습, 식품 등 모든 知識分野를 收錄하고자 한 이 책은 근본적으로 分科式 체제를 이루고 있으나 여기에 포함된 語源辭典은 字母順 배열형식을 취하고 있다.²⁶⁾ 그는 教養과 世俗學問을 기독교교육의 진정한 기초로 간주하여 더 많은 중점을 두었으며 어원사전도 포함했다.²⁷⁾ 후에 西고트왕 Sisebut에 헌정된 이책의 영향력은 아주 넓고 장구적이어서 1천년이 상 사용되어 왔으며 現存本도 상당량에 달한다. 또한 편찬에서 독창적인 방법을 모색하였기 때문에 그를 백과사전의 創始者로 칭하기도 하고 이책을 종종 中世의 百科事典이라고도 부른다.²⁸⁾

24) 黃鴻珠, op.cit., p.16.

25) op.cit.

26) Collison, op.cit., p.367.

27) Ibid., p.379.

28) 鄭駢謨, op.cit., p.81.

9세기에 들어와 독일의 Rabanus Maurus는 Isidore의 것을 근거로 하여 20권의 〈De Universo〉를 편찬했으나 대부분 Isidore의 책에서 비이성적으로 표절하여 은유 혹은 神奇的인 설명만 附記했을 뿐이다.²⁹⁾

백과사전의 발전이 이때를 前後하여 권위있는 著作을 기초로 소유한 지식을 한 책에 모으고 또 擘目 等を 붙이며 주제편성의 성격면에서도 역사, 법률, 농업, 의학, 수의학, 동물학 등에 관한 古典의이고 기독교記錄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들이 조직되는 等 간단하지만 현대적 백과사전의 형식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宗教와 神의 관념은 여전히 서양학술의 중심위치에 서있었다.

A.D. 10 ~ 11세기경에 알파벳順배열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이 事典的 辭典으로 알려진 〈Suidas 혹은 Suda〉에서 두드러졌다. 이 책은 事典과 辭典에 다리를 놓은 것으로 命名되는 事物이나 思想의 定義를 記述하고 한 단어의 語源과 定義를 덧붙인 새로운 유형이었다. 알파벳順배열 형식은 以前의 그리스·로마시대의 문헌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 책은 全項目을 완전히 알파벳順으로 배열한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이후 16세기까지 다른 백과사전의 편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나 그 內容이 상당히 충실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重刊되어 資料源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하였다. 〈Suidas〉이후 부터 새로운 유형의 백과사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120년에 발행된 Lambert of Saint-Omer의 〈Liber Floridus〉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역사, 신학, 문학, 점성학, 마술, 과학 등의 주제를 내용으로 詩와 詩文形式으로 서술하고 있다. 魔術과 占星學과 같은 主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자신의 흥미³⁰⁾와 함께 당시의 풍조였지만 이 事典이 出版된 이래 점차 없어지기 시작하였다.³¹⁾

12세기의 發展에 代表的인 것은 Honorius Inclusus의 〈Imago Mundi〉와 女性의 事典編纂이라 할 수 있다. 〈Imago Mundi〉는 全3卷으로 기독교도들의 요구를 기초로 하여 만든 것으로 地理, 占星學, 天文學, 編年史, 歷史 등의 主題가 포함되어 있다.³²⁾ 그 배열이 철저하여 12세기 중 가장 진보된 백과사전

29) Collison, op. cit., p.380.

30) loc. cit.

31) Ibid., p.375.

32) 黃鴻珠, op. cit., p.18.

이라 할 수 있다. Hohenburg의 수녀원장 Herrad of Landsburg는 자기의 책임에 있는 修女들의 교육을 위해서 < Hortus Deliciarum >을 편집했다. 이 事典은 9000여개의 초상화와 636개의 정교한 채색삽도를 가지고 있는 630페이지짜리의 것으로 당시 삽도화 제작중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³³⁾ 여성이 편찬한 최초의 백과사전이다.

13世紀중엽 學者이며 詩人인 스페인 國王 Alfonso 10世가 < Grande E. General Estoria >를 編纂했다. 그는 初期 백과사전제작자들이 주로 단독으로 執筆하던 것과는 달리 편찬에 앞서 學者, 翻譯者, 編輯者, 作家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회랍어, 아랍어, 라틴어, 로마어의 書籍을 주어 研究케 한 後 共同討論을 거친 다음 編纂하였다.³⁴⁾ 여기서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집필자가 참여하는 현대적 백과사전의 편찬방식의 싹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世紀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럽에서 가장 通俗의이고 平易한 백과사전으로 인정된 < De Proprietatibus Rerum >이 1220 ~ 1240年 사이에 Bartholomaeus Anglicus에 의해 全20卷으로 發行되었다. St. Isidore와 Pliny의 백과사전을 근거로 하여 일반인을 위해 고안된³⁵⁾ 이 책은 神, 天使, 영혼, 人體, 해부학, 占星學, 천문학, 鳥類, 漁類, 곤충, 動·植物學, 地理學, 生態學, 색채, 量度, 度量衡等 多方面의 主題를 分類排列한 다음 그 밑에서 알파벳順배열을 하고 있다. 그 編纂目的이 通讀에 있지 않고 參考調査에 두고³⁶⁾ 參考資料의 屬性이 점차 현대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식케 해 주며 이 특성에 따라 3세기동안 유럽에서 가장 流行된 백과사전이 되었다.³⁷⁾

그러나 中世에서 學者들을 위한 知識의 要約형식을 취한 것 가운데 가장 代表的인 것은 A.D. 1244年 도미니카敎團의 수도승 Vincent of Beauvais(1190?-1264?)의 < Speculum Majus >이다. 全80卷 約1000章으로 된 巨帙로서 18세기중엽까지 어떤 백과사전도 크기면에서는 필적할 수 없었다. 균형이 잘 이루어진 3部分으로 된 이 책은 第1部는 Naturale 로써 神과 人間, 創造와 自然史, 第2部는 Doctrinale 로써 語文, 論理學, 修辭學 및 日常生活에 관한 問題, 第3部는 Historiale

33) loc. cit.

34) loc. cit.

35) Collison, op. cit., p. 380.

36) 黃鴻珠, op. cit., p. 18.

37) Collison, op. cit., p. 380.

로 古代부터 十字軍遠征까지의 世界歷史가 포함되어 있다. Vincent가 3부를 마치고 死亡하자 St. Thomas Aquinas의 것을 근거로 하여 第4部인 Morale이 1454년에 추가되었다. < Speculum Majus >의 영향은 즉각적이며 또 영속적인 것으로 各國語로 번역되었으며 1863 ~ 1879年間에는 再印刷本이 나왔다.³⁸⁾ 이 書名이 갖는 意味는 “비교적 큰 거울”로 作者가 이책을 人類知識의 全分野를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처럼 사실상 중세 지식세계에 대해 개괄적이었다. 이 사전에는 당시 유행하던 異教徒와 기독교의 傳說을 거의 收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이후의 백과사전은 이용대상자를 극히 限定된 宗教的 社會界보다는 더 넓은 일반대중으로 전환하였다. 이책에서 가장 특기할만한 가치는 現存되지 않는 많은 文獻에서 자료를 발췌한 점이다.

1300年 全2卷의 < Lumen Animae >와 1320年 全8卷의 < Compendium Philosophiae >가 익명으로 출판되었다. 前者는 기독교 초기의 敎父 혹은 道德家의 著作과 극히 드물게 自然科學에 관련되는 主題를 內容으로 하여 字母順 배열형식을 갖추었고, 後者는 神學, 天文學, 鑛物學, 動植物學, 人類, 形而上學, 哲學, 倫理學 등의 主題를 內容으로 하여 編成에 刷新을 기하였다. 즉 項目記述에 있어 公정한 태도와 學究的인 方法으로 巷間에 떠도는 杜撰的인 故事들이 모두 배제되었고 科學上의 最新 發展을 많이 소개하였다. 이 두책을 통해 현대과학적 백과사전의 관념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50年 Gulielmus Pastregicus는 < De Originibus Rerum Libellus >를 편집했다. 이사전은 종래의 사전편성과는 相異한 方法을 사용했는데, 著名한 學者와 作家의 姓名을 標題로 하여 字母順배열형식을 취한 점이다.³⁹⁾

印刷術 發明 以前까지 百科事典에 사용된 言語는 거의 絶대적으로 라틴語였다. 이는 라틴어가 당시의 學術語로서 또 世界語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語出版物은 지역을 초월하여 國際的인 有用性을 갖게 해주고 또 情報의 無制限的인 擴散을 증진시키는 利點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일반인들의 접근에는 장애가 되었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大衆에게까지 보급하려는 노력은 그들의 共用語로 출판하

38) loc. cit.

39) 黃鴻珠, op. cit., p.19.

거나 또는 보다 더 중요한 백과사전을 各國의 自國語나 方言으로 번역하려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運動은 Brunetto Latini와 Guido Cavalcanti의 < Li livres dou trésor >에서 最初로 나타났다. Latini는 이태리의 商人層과 文化階層에 達하기 위해 그들의 共通言語인 佛語를 사용하여⁴⁰⁾ 간결하고 정확한 事典을 만들었다. 이어 1460年경에는 Willam Caxton이 Honorius Inclusus의 < Imago du Mundi >에 대한 英譯本을 出版하여 英語로 된 최초의 百科事典을 만들었고 또 1481년에는 Beauvais의 < Speculum Majus >를 < Mirror of the World >라는 題名으로 번역했다.

라틴語의 獨점이 무너짐과 함께 편성상에도 많은 개선이 되따라 15세기초 Domenico Bandini의 < Fons Memorabilium Universi >에서는 최초의 상호참조표시가 등장하였다.⁴¹⁾ 이로 저명해진 이사전은 內容主題 가운데 특히 歷史와 地理 方面이 강했다.

1435年 Alfonso de la Torre는 Carlos of Viana 왕자의 教育을 위해 < Vision Delectable >을 편찬했다. 그는 가장 初期부터 百科事典이 基本요소였던 三學四藝를 科學, 哲學, 神學, 法學, 政治學보다 앞서게 하여⁴²⁾ 教育的 性格이 強하였다. 이책은 계속적인 요구가 있어 1556年 이태리學者의 簡略版이 있었고, 또 스페인의 번역가 Franciso De Caceses가 스페인국민을 위해 번역하였으며, 또 1663년에 이태리語로 번역되어 < Libro Intitulado vision Deleytableey Sumario De Todas Las Ciencias >로 出版되었다.⁴³⁾ 이 기능이 더 강조된 것은 Gregor Reisch (? - 1525)이 靑少年의 教育을 위해 당시 全大學의 科目을 아주 簡略하고 평이한 形式으로 收錄한 < Margarita Philosophica >이다⁴⁴⁾

특히 15世紀에 우세하였던 人文主義는 百科事典의 編纂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心理學과 哲學의 方法의 개척자인 Juan Luis Vives의 < De disciplinis :1531 >에서 나타난다.⁴⁵⁾ Vives는 종교적 권위에는 도전하지 않은 채 自然에 대한 그의 主張을 근거를 만들었으며, 또한 진리추구에 있어 백과사전의 역할을

40) Collison, op.cit., p.380.

41) Ibid., p.371.

42) Ibid., p.367.

43) 黃鴻珠, op.cit., p.19.

44) Collison, op.cit., p.380.

45) loc. cit.

강조했다.

알파벳순 항목배열의 형식은 그리스·로마시대 이후 < Suidas >에서 완전한 채택이 대두된 이래 보편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503年 이태리의 Domenico Nani Mirabelli는 < Polyanthea Nova >에서 그형식을 따름으로 해서 中繼시켰다.

16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전 환상적인 書名이나 단순히 辭典이라고 불리웠던⁴⁶⁾ 것과는 달리 百科事典의 命名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541年 < Cucubrati-ones vel Potius Absolutissima Cyclopedia >⁴⁷⁾을 출판한 Basel의 Ringelberg는 書名에 < Cyclopedia >를 사용한 最初의 사람이다.⁴⁸⁾ 1559年 < Encyclopaedia: seu orbis disciplinarum, tam seclarum quam ... >를 出版한 독일의 Paul Scalich는 책을 記述하기 위해 書名에 < Encyclopaedia >를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다.⁴⁹⁾

또한 人文主義의 영향으로 다수 백과사전에서는 神學者, 哲學者, 古典文學家가 編輯을 주로 했으며 주로 번역본에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自國語 出版이 가능했다. 1553年 이전까지 다른국가의 백과사전번역에 의존하던 불란서에서 Charles Estienne (1504 ~ 1564)이 < Dictionarium Historicum, geographicum et poeticum >을 출판하여 최초의 佛語版을 만들었으며⁵⁰⁾ 이사전은 百科事典的 辭典으로 이런 유형의 範疇을 시작케 한 것이다.⁵¹⁾

2. 2 단계 : 1601 ~ 1800

17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主題의 論理的인 連續性이 불확실하여 각 학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說明이 특히 부족했다. 主題選定에 있어서도 神學的인 것보다 實用的인 主題에 重點을 두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계기를 만든 것은 Francis Bacon (1561 ~ 1625)의 미완성된 < Instauratio Magna: 1620 >였다. 事物과 人間사이에 公正하고 合理的인 친밀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더

46) Ibid., p. 365.

47) Night Studies 혹은 The most Complete Cricle of Education 이라고도 함.

48) 黃鴻珠, op.cit., p.19.

49) Collison, op.cit., p.365.

50) Ibid., p.380.

51) Ibid., p.375.

적절한 기초위에 生成된 自然科學, 藝術 等 모든 人間知識의 전반적인 再建을 목적으로 著述된⁵²⁾ 이책 속에 < Encyclopaedia of Nature and Art >가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130 部門을 自然, 人間, 自然에 대한 人間の 行動의 3 部로 계획한 철저히 科學的인 百科事典이다. 특히 그는 百科事典學者는 人間の 思考와 노력 全分野에서의 努勞를 방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作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人間知識 全範圍에 대해 광범한 概要를 가져야한다는 信念하에 특별히 科學的인 分類를 考察하여 後世의 學問分類와 事典編輯政策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⁵³⁾

이즈음 라틴語百科事典 編制에 또다른 중요성이 부여되는 2개의 事典이 있었다. 하나는 Petina의 主教인 Antonio Zara가 체계적인 分類順 組織을 갖고있으며 索引이 포함되어 있는 < Anatomia Ingeniorum et Scientiarum:1614 >를 編輯한 것이고, 또하나는 독일의 言語學者인 Johann Heinrich Alsted가 만든 < Encyclopaedia Septem Tomis Distinct:1630 >이다. 특히 Alsted의 것은 資料들을 7개의 主要한 標目的 알파벳순으로 分類排列하여 35卷의 冊에 나누어 실은 것으로 Matthias의 知識分類에 광범하게 상응되는 것이다.⁵⁴⁾ 이런 이유로 이사전은 그書名에 나타난 < Encyclopaedia >라는 용어에 맞는 배열에 강조점을 둔 진정한 의미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自國語 事典編纂者 가운데 Louis Moreri(1643 ~ 80)와 Pierre Bayle(1647 ~ 1706)은 라이벨과 같은 關係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불란서인으로 Moreri가 1674년에 < Le Grand Dictionnaire Historique >를 出版하자 Bayle은 1697년에 <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를 著述하여 Moreri의 結論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修正을 시도했다. 여기에 대해 Moreri는 다음版에서 Bayle의 修正과 補充을 結合하여 補完시킴으로써 대응했다 한다.⁵⁵⁾ Moreri는 地理와 傳記 資料에 중점을 두었으며⁵⁶⁾ 이전의 分類式 배열

52) Ibid., p.380.

53) Ibid., p.380.

54) Ibid., p.381.

55) Shores, Louis. Basic Reference Sources. Chicago, ALA, 1954, pp.58-59.

(朴俊植 op.cit., p.237 재인용)

56) Collison, op.cit., p.381.

형식에서 벗어나 全項目을 알파벳順 배열로 하였다. 이책은 發行되자 대중의 호응을 받아 1759년에 第20版이 全16卷으로 出版되었다. 이 事典은 每1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資料가 계속 삽입됨은 물론 새로운 事件 혹은 當代의 새로운 傳記資料도 포함하여 改訂해 나가므로 해서 이후 西洋 百科事典에 最新性 유지의 관념을 주입시켰다. Bayle의 事典은 每項目마다 編者의 說明외에 名家의 견해를 拔萃하여 附記하였으며 그 이전의 맹목적인 숭배와 假定에 도전하여 철저히 科學的이고 探索的인 정신을 적용하였다.⁵⁷⁾ 이것 또한 全項目의 알파벳순배열 형식으로 百科事典의 객관적인 권위를 확고하게 한 것이 특색이다.

17세기 백과사전 발전에 나타난 불란서의 공헌 중 하나는 1690년에 出版된 Antoine Furetière의 < Dictionnaire Universel des arts et Sciences > 이다. Furetière는 Académie Francaise와 事典出版權 문제에 대한 치열한 訴訟으로 그의 生前에 출판하지 못하고 死後에야 출판하게 되었다. 이 事典은 近代文化와 科學, 工學에 급진적으로 증가되는 대중의 관심을 반영시켰으며 商業과 言語學, 通俗語彙, 현대적 용법도 收錄하여⁵⁸⁾ 훌륭한 百科事典의 辭典을 編輯하였다. 4年後 Académie Francaise가 Thomas Corneille에게 < Le Dictionnaire des arts et des sciences:1694 >의 편찬을 위임한⁵⁹⁾ 것은 대중의 관심이 보다 近代的인 형태의 백과사전 쪽으로 점차 기울어짐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初期이래 많은 백과사전이 특별한 계층의 敎育이나 參考資料로 活用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거의 成人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7세기末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편집된 것이 출판되어 이용대상자의 연령과 수준이 편성에 구분을 주는 동기를 이루었다. 그것은 독일 교수인 Johann Christoph Wagenseil(1633 ~ 1705)가 1695년에 發行한 < Pera Librorum Juvenili-um >이다.⁶⁰⁾

17세기까지 다수의 백과사전은 司牧者를 위해 司牧者가 만든 것이었다. 그러나

57) Ibid., p.369.

58) 黃鴻珠, op.cit., p.20

59) Collison, op.cit., p.381.

60) Ibid., p.368.

18세기에서는 보다 더 대중화된 것이 출판되어 백과사전의 定型時期를 이루었다. 또한 그 收錄範圍나 編製技巧上에 많은 進展이 있었으며 現存되는 몇몇 事典들이 이때에 만들어지기도 했다. 백과사전의 본질에 대한 공공토론이 많았던 시기 또한 18세기로 백과사전의 理想的인 內容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다.⁶¹⁾

司牧的 백과사전의 時期는 프란체스코 修道會 修士 Vincenzo Maria Coronelli가 이태리語로 出版한 < Biblioteca Universale Sacra-Profana: 1701 ~ 1706 >이 豫定된 45卷 가운데 제7卷으로 出版의 中止됨을 알았을때 終熄되었다. 이책의 原計劃은 30萬項目을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여 完成되었을 경우 字母 順排列形式으로는 당시 最大의 백과사전을 만들고자한 것이다. 또한 卷1에서 卷39까지는 本文이고 卷40에서 卷42는 修正과 增補用, 卷43은 각종 색인부분으로 계획되었었다. 이책은 비록 미완성으로 끝났을지라도 이러한 설계는 순식간에 서양백과사전에 擴散되었으며 現代人에게 까지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다.⁶²⁾

이즈음 백과사전 發達史에 있어서 보다 확고한 寄與를 한 것이 出現되었다. 이는 1704年 London의 科學者 John Harris가 出版한 < Lexicon Technicum 혹은 An Universal English Dictionary of Art and Sciences >와 1728年 Ephraim Chambers의 < Cyclopaedia(alternative title: An Universal - dictionary of arts and sciences) >이다. Harris는 당시 불란서백과사전의 번역에 의존하던 英國을 최초로 自國語백과사전을 갖게 해주었다. 이를 기초로 날로 발전하여 그후의 많은 불란서백과사전이 놀랍게도 英國의 백과사전을 기초로 했다. 그가 “藝術의 用語뿐 아니라 藝術 자체까지 설명하는 藝術과 科學의 世界的인 英語事典이다.”⁶³⁾ 라고 말한 것처럼 神學, 傳記, 地理學과 같은 主題를 누락시키는 반면에 藝術과 科學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英國學術院⁶⁴⁾의 會員이었던 Harris는 科學者와 접근이 용이했던 관계로 科學關係의 主題項目들은 John

61) Ibid., p.375.

62) 黃鴻珠, op.cit., p.20.

63) Collison, op.cit., p.275.

64) 1660年 創立됨.

Ray와 Issac Newton경과 같은 著名한 과학자의 지도와 도움으로 執筆하여⁶⁵⁾ 著名한 學者가 百科事典의 寄稿者가 되어 權威를 높이는 기초를 이루었다. 이외에도 탁월한 插圖, 선명한 本文, 主要 項目에 附記된 書誌와 記名 등으로 현대적 백과사전의 體制를 갖추기도 했다. Chambers는 Harris의 啓示를 받아 用語의 說明과 著名한 學者들의 論文에서 編輯한 여러 學問, 教養, 科學과 藝術에서 중요시되는 事物의 解說에 重點을 둔⁶⁶⁾ 事典을 編輯했다. 全 2卷으로 出版된 이 책은 國外的 專門家를 執筆에 참여시켜 권위성의 높은 점과 상호참조를 사용하여 散在된 相關항목을 연관시킨 점에서 백과사전편집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공헌으로 그는 現代百科事典의 아버지로 世界的인 인정을 받았으며⁶⁷⁾ 이 事典은 英國百科事典의 里程表가 되었다. 出版된 후의 좋은 반응으로 1744年 5版이 발행되었으며 그영향은 國外에 까지 확산되어 1745年에는 당시 불란서에 살고있던 영국인 John Mills와 Gottfried Sellius가 佛語로 번역하여 후일 Diderot와 D'Alembert의 <Encyclopédie : 1751-1780>의 編成기초가 되었으며 이태리에서도 번역판을 발행하여 최초의 이태리백과사전이 되게 했다. 1778년경 영국에서는 Abraham Rees가 改訂과 擴充을 가하여 유명한 <Rees Cyclopaedia>를 만들기도 했다. 1753年에는 英國皇室의 가정교사였던 George Lewis Scott가 第7版의 부록을 2卷으로 發刊하여 백과사전의 최신성을 부록으로 유지하려는 아이디어의 기초를 만들기도 했다.⁶⁸⁾

1751年 불란서에서 <Encyclopédie>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근대백과사전의 金字塔이라 불리는 이사전은 哲學者인 Denis Diderot(1713-1784)와 數學者이며 哲學者인 Jean Le Rond D'Alembert가 연합하여 시작하였으나 D'Alembert가 1759年 은퇴함으로 편집책임은 Diderot에게 돌려졌다.⁶⁹⁾ <Encyclopédie>는 당시 불란서 및 유럽의 백과사전과 學界의 권위자들인 Vo-

65) Collison, op.cit., p. 368.

66) Ibid., p. 375.

67) Ibid., p. 381.

68) Ibid., p. 371.

69) 黃鴻珠, op.cit., p. 21.

ltaire, Rousseau, Condillac, D'Alembert, Montesquieu, Turgot, D'Anville, D'Holbach, Marmontel, Euler 등을 포함하여 21명의 권위있는 寄稿者들이 분담 집필하였다.⁷⁰⁾ 이렇듯 당시의 啓蒙主義 作家들이 대거 참여하여 作業을 벌였으나 絶對王政으로 인한 政治的 탄압과 宗教的 탄압속에서 出版禁止, 秘密印刷, 가짜 出版事項⁷¹⁾ 및 編輯者 投獄등 일련의 시련속에서 30년이 걸려 1780년에 완성되었다. 이事典은 원래 10卷으로 계획되었으나 1751년에서 1772년까지 28卷이 발행되었고 1776-1777年間に 본문補遺篇 4卷, 1777년에 插圖補遺篇 1卷, 1780년에 색인 2卷이 發行되었다.⁷²⁾ 1774年 國王 만찬석상에 있었던 論爭 중에 <Encyclopédie>에 당시 잡다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모두 실려 있음을 확인한 국왕이 이책의 發行을 허락하자 유럽 각국의 백과사전들이 그들의 백과사전 편집에 底本으로 이용하였다. 이사전은 18세기가 될 때 까지 유럽 최고의 백과사전이 되었으나 애석히도 19세기 이후에는 發行이 계속되지 못했다. 후일 이사전을 일러 “學習의 寶庫” 또는 “知識의 要約”이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세계백과사전 가운데서 가장 크고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는 <Encyclopaedia Britannica>가 發行되도록 動機를 유발하였다.⁷³⁾ 英國 Chambers의 <Cyclopaedia>가 불란서의 Diderot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英國으로 돌아오는 因果關係가 생긴다.⁷⁴⁾ 現代 百科事典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Encyclopaedia Britannica>는 1768年 스코틀랜드人인 Andrew Bell, Colin Macfarquhar, William Smellie에 의해 週刊紙 형식으로 시작되어 第100期일 때인 1771년에 걸쳐 初版 全3卷(2670페이지)을 에딘버러市에서 出版하였다.⁷⁵⁾ 현대백과사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評價되는 <Britannica>도 初期에는 外科學, 圖書保存, 農業 方面의 主題에 대해서는 論文형식으로 길게 하고, 간단한 것은 敘述形으로 하였으며, 傳說的 故事와 복잡하고 迷

70) Shores, op. cit., p.55.

71) Collison, op. cit., p.369.

72) 黃鴻珠, op. cit., p.51.

73) 木寺清一, 圖書館資料概說, 東京, 明治學院, 1969. p.45. (朴俊植, op. cit., p.239 재인용)

74) 朴俊植, op. cit., p.239.

75) 黃鴻珠, op. cit., p.21.

信的인 事項도 수록되어 缺點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事典 역시 藝術과 科學分野에 치중된 것이었다.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缺點을 갖고 있던 第1版을 內容과 編成體制面에서 全力 改進黨하여 完善하려는 노력으로 第2版(1777-1784)에서는 크게 改善되었다. 全 10卷으로 出版된 第2版은 歷史와 地理 方面의 資料가 擴充되어 歷史方面에서는 生存人의 傳記도 수록하고 地理方面에는 圖表를 사용하여 記述하였으며 더 길어진 記事에 대해 個別的 索引이 있고, 10卷末에는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부록이 포함되어⁷⁶⁾ 점차 현대적인 특징의 기초를 이루었다.

한편 初期에는 주로 外國 百科事典의 번역에 의존했던 독일은 1704年 學究的인 <Hübner = Konversations - Lexicon>을 Brockhaus에서 出版했다. 이러한 通稱은 序文의 著者이름에서 유명해진 것으로 이유행은 적절한 문화적 배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백과사전이 환영받은 국가에서 급증되는 中産層의 호응을 받게되었다. 이에 연유되어 이런 類型의 出版은 계속되어 1721年 Johann Theodor Jablonski가 <Allgemeines Lexicon>을 발행했는데, 이사전은 歷史와 傳記分野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였다. 또 1727年에 스위스의 神學者이며, 言語學者인 Jakob Christoph Iselin과 Antonius Moratori가 이와 비슷한 것을 發行하기도 했다.⁷⁷⁾

라이프니체의 書籍商이었던 Johnn Heinrich Zedler는 <Grosses Vollständiges Universal Lexicon:1732-1750>을 라이프니체의 書籍商과 出版商을 위해 出版했다. 그는 2名の 일반편집인이 9名の 전문적편집인의 諮問을 받는 編輯政策下에서 최대한의 正確性을 갖도록하였다.⁷⁸⁾ 초기계획으로는 全 12卷의 出版예정이었으나 결과는 64卷으로 방대해져 극단의 재정곤란 속에서 완성되었다. 이事典의 특징은 生存人의 傳記 收錄과 아주 상세한 叢誌資料와 字譜로써⁷⁹⁾

76) Collison, op. cit., p.371.

77) Ibid., p. 382.

78) loc. cit.

79) 黃鴻珠, op. cit., p.21.

당시의 最大 백과사전인 동시에 가장 좋은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778年 부터 1807년까지 Diderot의 <Encyclopédie>의 독일형의 제작이 시도되었으나 실패되었다.⁸⁰⁾ 곧이어 Renatus Gotthelf Löbel과 C.W. Frank가 사전편찬에 착수하여 1796年에서 1799年사이에 第1卷에서 第3卷이 완성되어 <Frauenzimmer Lexikon>으로 나왔다. 이책에서는 女性大衆을 위한 項目이 많이 수록되어 주목을 끌었으나 Löbel의 사망후 版權이 Cenpold에게로 넘어가서 1800年 第4卷이 出版되었으나 이후 계속된 경영난으로 끝내 破産하고 말았다.⁸¹⁾

3. 3단계 : 1801 - 현대

18세기 때에는 많은 백과사전의 出現과 함께 그 판매로도 좋아 學術界의 重要性이 認定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일반대중들의 購買力이 높아지자 投機者들이 營利을 목적으로 많은 백과사전을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때 출판되는 백과사전은 翻譯을 빌미로 剽竊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축소하여 만드는 등 質的인 面에서 크게 떨어졌다. 또 外形面에서도 큰 백과사전은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또 너무 작은 것은 粗雜스러워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대체로 中型의 형식으로 偏向되었다.⁸²⁾ 또한 商業性이 강한 出版에 놀려 非營利的인 백과사전은 널리 流布되지도 못했으며 그 數에 있어서도 극히 적었다.

19세기初 독일에서는 백과사전의 역할을 건전한 社會를 위해 올바르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⁸³⁾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認識하에 1808年 Friedrich Arnold Brockhaus는 Löbel의 破産된 백과사전 <Konversation Lexikon:1796-1808>을 인수하여 독일국민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인 事典을 만들었다. 小項目主義를 채택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圖表가 많고 每항목마다 寄稿者의 署名이 있으며 많은 書誌資料가 附記되어 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여 계속 발전되어 第9版 이후부터는 地圖集이 더욱 증가되어 현대백과사전

80) Collison, op.cit., p.382.

81) 黃鴻珠, op.cit., p.22.

82) loc. cit.

83) Collison, op.cit., p.366.

의 형태를 갖춘 성공적인 백과사전으로 國內外에 넓고 깊은 영향을 끼쳤다. Brockhaus는 相互參照의 表示에서 “see also”라는 單語대신에 화살표 사용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창안하기도 했다. 또 최신성의 유지를 위해 第10版의 年鑑으로 月別부분(1857-1864)으로 發行하여 새로운 근거를 만들었으며 第11版의, 발행을 시작할 때는 이름을 <Unsere Zeit>로 바꾸고, 그 빈도도(1865-1874) 2倍로 되었다.⁸⁴⁾ 이 책은 발전기간 중 여러번 書名이 바뀌어 最近에 刊行된 第17版은 <Brockhaus Enzyklopädie>로 命名되나 編輯方針에는 큰 변화가 없다. 第17版의 경우 22萬5千項目的 記事를 千名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著名한 寄稿者들이 분담하였으며 25000의 插圖와 800枚의 地圖가 수록되어 있다.⁸⁵⁾ 그러나 Brockhaus는 自然科學과 技術的인 주제보다 人文科學에 더 강했기 때문에 독일 語圈이나 대규모 研究圖書館에서 더 有用性을 갖고있다.⁸⁶⁾

이에 연이어 1818年 Johann Samuel Ersch와 Johann Gottfried Gruber가 <Allgemeine Encyclopädie>의 출판에 착수했다. 이들은 보다 빠른 출판을 위해 알파벳순배열로 구상된 사전을 A-G, H-N, O-Z의 3부분으로 나누어 편찬하고자 하여 第1部는 1822年 99卷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第2部는 1889年에 중단되어 <Ligature>部分만 43卷으로 완성되고 나머지는 완성되지 못했다. 第3部 또한 第2部와 마찬가지로 완성되지 못하고 1850年에 중지되었으나 <Phyxios>부분만 25卷으로 완성되었다.⁸⁷⁾ 비록 미완성으로 끝났으나 완성된 부분이 167卷에 달하는 巨帙로써 西洋 歷代上 최대의 백과사전이었다. 이 事典은 Brockhaus의 것과는 반대로 大項目主義를 채택한 것으로 項目 가운데 회람부분이 3688페이지, 영국부분이 700페이지에 달할⁸⁸⁾ 정도로 길어 비록 미완성된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西洋學者들의 研究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84) Ibid., p.371.

85) 朴俊植, op. cit., p.252.

86)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4th ed. Vol. I. Basic Information Sources. N. Y., McGraw-Hill, c1982, p.199.

87) 黃鴻珠, op. cit., p.22.

88) Ibid., p.23.

있다.

18세기에 백과사전이 비교적 발달되었던 영국에서는 Chambers의 <Cyclopaedia>에 改訂者로서 오랫동안 徒第로서 봉사했던 Abraham Rees가 마침내 완전히 독창적이고 훌륭하게 例證된 <The New Cyclopaedia:1802-1820>를 出版했다. 이책은 Chambers의 것을 修正하고 또 擴充하여 만든 것으로 世界地圖帖과 地名事典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국 音樂史家인 Charles Burney와 植物學者인 J.E.Smith경과 같은 권위자들이 寄稿하여⁸⁹⁾ 事典의 권위를 확실히 하여 19世紀에 出版된 백과사전으로 <Britannica>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1817年 Thomas Curtis는 <Encyclopaedia Metropolitana>의 편찬을 시작하여 1845年 쉰 28卷을 완성했다. 그는 본래 당시 영국최대의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계획하여 천문학자인 William Herschel경과 수학자인 Charles Babbage와 같은 著名人士를 집필진으로 하여 당시 우세했던 알파벳순배열과 상반된 배열형식을 취하였다. 이사전의 배열은 영국의 詩人이며 批評家인 Samuel - Taylor Coleridge가 考案한 것으로 5개部門 즉 ①純粹科學-實際的(形而上學, 道德, 神學), 純粹科學-公式的(言語學, 論理學, 數學) ②混合 및 應用科學: 混合科學(力學, 水理學, 幾何學, 光學, 天文學), 應用科學(實驗哲學, 藝術, 工藝, 自然史, 自然史의 應用) ③年代順의 歷史와 傳記 ④地名辭典과 言語辭典 ⑤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Coleridge는 백과사전을 人間의 組織的인 思考를 가능하게 해주는 媒介物로 간주하고 그의 哲學的인 排列이 조화되어 知識循環을 나타내고 設計와 說明에 統一性을 줄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만 地名辭典과 英語辭典은 參考의 用易性을 위해 알파벳순배열로 하고자 했다.⁹⁰⁾

그러나 이와같은 編輯者의 높은 理想과는 달리 알파벳순배열이 유행하던 시기에 이미 그것에 익숙해있던 大衆들은 이事典을 외면하였다. 失敗原因은 이외에도 編纂期間이 29年間으로 그동안 主編輯者가 3번이나 바뀌어 일관된 編輯方針을 갖

89) Collison, op.cit., p.368.

90) Ibid., p.367.

지 못했으며 아울러 資料도 最新性이 없었다. 또한 이미 <Britannica>의 發展으로 市場확보에 기반을 잡고있어 販路上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예기했던 成果를 이루지 못했다.

이책은 Coleridge의 독촉하에 1848年과 1858年 사이에 全 40卷으로 出版되었으나⁹¹⁾ 계속적인 재정문제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事典에서 Bacon 이래 哲學百科事典의 제작에 가장 주목할만한 寄與를 한 Coleridge의 <On Method:1818>이 나오게 되었다.

한편 18세기에 第2版의 發行을 한 <Britannica>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發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801年에 第3版을 발행하였는데 이때 2卷으로된 別卷 부록을 만들었다.⁹²⁾ 第4版과 第5版에는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항이 보충되었다. 즉 著名한 論文 3篇을 실고 外國專門家를 寄稿者로 選定하였으며 重要항목의 記事에는 執筆者의 署名이 되어있고 寄稿者의 名單도 수록되어 있다. 계속적인 발전 가운데서도 第9版과 第11版은 특히 유명하다. 9版(1889)은 Arnold, Swinburne, Huxley 및 기타 19세기 주요 영국학자들이 寄稿한 長篇의 記事를 가지고 있어 “學者版”으로 불리운다⁹³⁾ 長篇論文이 많이 수록되어 分量이 2萬餘페이지에 달했으며 插圖도 9000여개가 있었다. 또한 傳記分野에서 被傳者의 生沒年을 정확히 기재하여 명성을 얻어 이후의 백과사전에 영향을 끼쳤다. 主題選定에 있어서도 日常生活과 관련되는 것들이 풍부히 收錄되어 있으며 枚篇에 重要文章외에 개별적 分析索引이 附記되어 있고, 重要日도 들어 있다. 1910-1911年에 出版된 第11版은 全 29卷으로 이것 역시 學者版이라 불린다. 완전 出版으로 나온 이版의 우수한 點은 각 책이 자기 하나의 主題가 적당한 標目下에 배열되는 정돈된 조직을 갖는 점이며, 많은 項目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어 심한 경우는 單行本의인 가치를 갖고 있어 教科書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최신성 유지의 수단으로 1913年 부더 年鑑을 부록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91) 黃鴻珠, op. cit., p.23.

92) Collison, op. cit., p.371.

93) Katz, op. cit., p.184.

編者들은 백과사전의 目的이 參考用임을 인식하여 점차 項目의 길이를 줄여 여러 개의 小主題로 나누어 서술했다. 1929년에 발행된 全 24卷의 第 14版에는 長篇의 大項目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著述의 수준도 多數의 일반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普遍化 혹은 平民化로 轉向하여 세계백과사전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것이 되었다. 14版 이후 새로운 版의 출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것은 계속적인 改訂政策으로 最新性を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政策으로 轉換하게 된 것은 每新版의 준비작업에 소비되는 資金과 時間이 상당량에 이를뿐 아니라 新版이 豫告되는 동안 舊版은 販賣停滯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常任 編修部를 두고 每年 修正할 것에 대해 逐年 修正하였는 바, 自然科學分野의 경우는 修正 요구가 빈번하여 매년 50% 정도가 수정된다고 한다.⁹⁴⁾ 最新性を 요하는 事項들은 年鑑으로 보충하고 있는데 1938年 以來 <Britannica Book of the Year>로 바뀌어 發行되고 있다.⁹⁵⁾ 14版 이후 經常改訂으로 계속 유지해 오던 <Britannica>는 끝없이 專門化·細分化되어 가는 학문의 추세와 教育的 機能보다는 參考機能을 더 중시하는 現代人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第 15版 (俗稱 Britannica Three)에 이르러서는 편집 방침을 완전히 바꾸었다.⁹⁶⁾ <Britannica Three>는 1947年 편집인단이 구성되어 1974년에 全 30卷으로 완성된 것으로 33,141 페이지에 달하며 131개국의 寄稿者 4,277名이 집필을 분담하였다.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로 命名된 이사전은 전체를 크게 propaedia, Micropaedia, Macropaedia의 3部로 나누었으며 第 1部 propaedia (1卷)에서는 知識의 要約과 Britannica全體에 대한 안내역할을 하도록 했다. 第 2部 Micropaedia (10卷)에서는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小項目 中心主義로 채택하고 항목 설명은 750 단어 이내로 간략하게 했는데 모두 102,214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Macropaedia의 색인 역할도 겸하도록 했다. 第 3部 Macropaedia(19卷)

94) 黃鴻珠, op.cit., p.21.

95) Collison, op.cit., p.249.

96) 朴俊植, op.cit., p.249.

는 專門家를 대상으로 하여 大項目中心主義를 택하고 세계 131개국의 學者, 專門家들이 字數에 구애를 받지 않고 분담된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있게 記述하도록 했다. 약 4,200 항목에 대해 대개 1,500 단어에서 부터 30 페이지 정도의 길이로 記述했으나 경우⁹⁷⁾에 따라 100 페이지나 되는 記事도 있다. 이런 편성으로 學者와 專門家에서 부터 일반 문외한 이용자에게 까지 만족을 줄 수 있는 탁월한 事典으로 評價받고 있다. 영국과 관련되는 부분이 특히 상세하고 分量도 많다는 論評 가운데 1920年 版權이 美國 Sears, Roebuck 公社로 넘겨져 1929年 英國과의 關係가 완전히 끝나자, 그러한 敘述은 많이 調整되었으나 여전히 英國分野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美國에서의 百科事典 編纂은 1829年 <Encyclopaedia Americana>의 出版과 더불어 시작되었다.⁹⁸⁾ 1827年 독일 亡命 政治家 Francis Lieber는 미국 보스턴에 도착하여 <Americana>의 편찬을 시작했다. 그는 독일 Brockhaus의 <Konversation Lexikon> 第7版을 근거로 하여⁹⁹⁾ 1833年 全13卷의 中小項目中心의 大衆的인 事典을 出版했다. 이 事典은 出版 후 각 方面의 愛호를 받아 修正을 통해 계속 발전되었으며 19세기末에는 <Scientific American>誌와 合作을 하여 1911년에는 그誌의 主編輯者인 Frederick Converse Beach가 編輯責任을 맡게 되었다. Beach의 영향으로 <Americana>는 科學技術 方面에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分野에 대한 계속적인 補強政策과 함께 미국분야의 자료에 중점을 두어 美國人의 傳記, 歷史, 地理, 政治 등에 아주 상세했고 文學과 音樂의 作品에 대한 批評과 概要는 대중들의 好評을 받아 人文科學과 自然科學 모두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¹⁰⁰⁾ 1918年 부터 20年에 걸쳐 全30卷의 完全 改訂版을 刊行한 이래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編成方針을 가지고 있으며 1970年版의 경우, 記事 58,000項目, 3,150萬語彙, 插圖 18,400 및 35,300 항목의 索引을

97) loc. cit.

98) 鄭駝謨, op.cit., p.82.

99) Katz, op.cit., p.185.

100) 黃鴻珠, op.cit., p.23.

갖고 있다.¹⁰¹⁾ 中小項目中心主義로 발전되어 오늘날에는 學術的 性格도 함께 갖춘 內容이나 規模面에서 <Britannica>와 匹敵할만한 事典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記述形式과 적절한 배열, 색인의 풍부함, 傳記資料의 풍부함과 상세함 등에서 權威를 인정받고 있다.¹⁰²⁾

英國에서 1860-1868年 Andrew Findlater가 <Chambers Encyclopaedia>를 편집했다. 이는 現在까지 계속 발전하여 著名한 것으로 1728年 Ephraim - Chambers가 主編한 것과는 無關하며 出版商인 William and Robert Chambers 형제의 이름에서 由來된 것이다. 이 事典은 Brockhaus의 第10版을 기초로 하여 全 10卷으로 이루어졌다. 이책의 名聲은 아주 좋아 1874年, 1888 - 1892年, 1895年, 1901年, 1908年, 1922-27年에 걸쳐 계속 改訂을 거듭하여 1950년에는 15卷이 되었으며 1955年 이후부터 평균 5年 단위로 改訂版을 내고 있다. 1935년에는 書名을 <British Universities Encyclopaedia>로 바꾸었으나 1944년에는 出版者가 다시 바뀌어 <Chambers Encyclopaedia>로 출판되었고 1952年 이후에는 <Chambers Encyclopaedia World Survey>를 부록으로 발행하고 있다.¹⁰³⁾ 이사전은 30개의 主標目으로 나누어 分類順 배열을 따른 체계적인 배열과 25萬項目이 넘는 索引의 특색이며¹⁰⁴⁾ 英國의 性格이 강한 것으로 評價받고 있다.

근대 백과사전 編成에는 근대 학문의 發達과 함께 教育의 大衆化가 많은 영향을 끼쳐 평균 每年 새로운 백과사전이 1部씩 나올¹⁰⁵⁾ 정도로 生産量이 많아졌고 種類도 多樣해졌으며 판매경쟁 또한 치열하여 편성방법과 수준에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때 두드러진 점은 事典이 現代 學問의 專門化 추세에 따라 每學門마다 거의 개개의 專門事典이 出現된 것과 이용계층의 수준에 따라 區別되어 靑少年 및 兒童百科事典이 개발되어 이용자 연령과 학문의 수준정도에 따라 적당

101) 朴俊植, op.cit., p.249.

102) Ibid., p.250.

103) 黃鴻珠, op.cit., p.23.

104) 朴俊植, op.cit., p.250.

105) 黃鴻珠, op.cit., p.23.

한 事典을 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7세기 말에 Wagenseil이 어린이를 위해 試圖한 것을 이어 1853年, Larousse가 <Petite Encyclopédie du jeune âge>의 출판으로 다시 시작했으나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英國의 作家인 Arthur Mee(1875 - 1943)가 編輯한 <The Children's Encyclopaedia:1910>와 美國에서 出版된 <The Book of Knowledge:1917>¹⁰⁶⁾와 <The World Book Encyclopedia: 1917>로 이들은 오늘날 아동 및 청소년 백과사전의 기초를 만들었다.

또한 현대 교육자료의 변화에 따라 事典編成에도 視覺的인 接近이 강조되어 선명한 插圖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으며 科學技術 分野의 발전으로 상세한 자료와 최신성이 강한 자료의 요구는 더욱 강해져 계속적인 改訂政策과 부록에서 제공하려는 정책은 확고한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20세기초에 대두된 事典으로 1902年과 1904年 사이에 출판된 Daniel Coit Harry Thurston Deck 과 Rank Moore Colby의 全17卷으로 된 <New - International Encyclopedia>와 스페인 ESPASA 發行의 <Enciclopedia Universal ilustrada europeo - americana>가 本文 全20卷과 부록 1卷으로 1905年 부터 1933年 사이에 出版된 것도 지적할만한 가치가 있다.

IV. 結 論

古代로 부터 單一 著作 속에 人間의 모든 知識을 要約하려던 목적에서 출발된 백과사전은 다소의 相異點이 있는 가운데서도 초기부터 현대까지 계속 한 方向으로 발전해 왔다. 그 相異點은 性格과 編成體制가 그 核을 이루는 것으로 시대의 변천과 학문의 발달에 많은 연관성이 있으며 이때 작용한 요인은 中世의 基督教, 印刷術의 發達, 文藝復興 및 教育의 普編化라 할 수 있다.

106) Collison, op. cit., p. 376.

그리스·로마時代에는 單一 學者가 제자나 특수계층의 教育을 위해 實用的인 主題를 중심으로 科學的인 方法을 도입하거나 字母順배열형식으로 객관적으로 記述하였다.

그러나 中世의 基督教은 백과사전 編纂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즉 宗教的 責任이 있는 聖職者가 聖職者의 教育이나 일반인들의 基督教 教育을 위해서 出版되었다. 따라서 主로 宗教的 主題를 中心으로 分科式 編成으로 宗教的인 항목에 중점을 두었다. 事典에 사용된 言語 또한 라틴語가 거의 독점적이었다. 印刷術의 發明과 文藝復興은 事典 編纂에 또 한번의 轉換點을 이루었다. 宗教的인 主題가 實用的인 主題로 점점 代置되는 가운데 藝術과 科學의 分野가 重視되었다. 全項目에 平等性이 주어져 字母順배열형식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우세성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때 라틴語 專用에서 벗어나 各國에서 自國語 혹은 共用語로 백과사전을 出版하여 일반 利用者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용자의 계층도 넓어졌다. 19세기에 들어와서 大衆教育이 普編化함에 따라 需要의 擴大가 일게 되어 營利的 出版이 급증되었다. 상업성의 출판은 그 형태와 체제에 변화를 주어 中型의 백과사전이 많이 출판되었다. 이때 현대 백과사전의 기초가 확립되어 권위적인 執筆陣의 構成, 상세한 색인, 插圖, 地圖, 書誌, 부록, 寄稿者 名單, 記名記事, 相互參照 등의 장치가 출현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런 裝置의 發展과 함께 學問의 專門化 추세에 따라 專門百科事典이 한 類型을 이루었고 더 나아가 利用者의 知的 水準을 고려하거나 이용 계층의 연령에 따라 分派되어 多樣性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이 西洋에서의 百科事典은 學問의 發達과 함께 그 時代의 知識總合體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時代의 변화와 大衆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발전하여 온 가장 기초적인 參考資料로서 貴重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각 註로 대신함.

Historical Study of Western Encyclopaedia

Kang, Hea-Young*

(Abstract)

An outline of the scope and history of encyclopaedias is essentially a guide to the story of the development of scholarship, for encyclopaedias stand out as landmarks throughout the centuries, recording much of what was known at the time of publication.

The early stage of encyclopaedias originated as summaries of scholarship in forms comprehensible to their readers, so that compiled their works single-handedly. The impact of Christianity brought a new phase in Western encyclopaedia making. As religion is emphasized in the encyclopaedias of those time, it pervades the whole of their contents. It was made for Christian education. The general trend in treatment in the Middle ages was arranged by subject.

Most of the encyclopaedias issu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printing into Europe having been arranged in a methodical or classical form, the alphabetically arranged encyclopaedia has a history of less than 1000 years. By influence of printing and Renaissance, a turning point came with encyclopaedia making. There were just as increasingly preferred to put practical topics first. Until those time, thought in terms of arranging their entries in alphabetical order has already familiarized.

By gener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in 19th-century, there were increasingly the number of purchasers so that prevailed commercial publication. It was those time that was settled the features of contemporary such as multivolume compendium of all available knowledge, complete with maps and a very detailed index, as well as numerous adjuncts such as bibliographies, illustrations, lists of abbreviations and foreign expressions, gazetteers, and so on.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the humanit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